

## 1. 머리말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내과적, 외과적 합병증들과 임신 그 자체 때문에 모체와 태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임신 그 자체에 의한 합병증, 즉, 임신 초기와 중반기의 유산, 전치태반, 태반 조기 박리에 의한 출혈, 임신 중독증이라고 일컬어지는 임신 전자간증, 자간증과 같은 임신성

는데, 이것은 임신초기 태반 착상부위 주위에서 일어나는 출혈로 임신의 예후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동통이 계속되고, 출혈이 지속되면 자궁경관이 개대되어 유산이 될 수 있으므로, 임신 초기에 출혈과 아랫배에 동통이 있으면 유산이 임박하였음을 염려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감별진단을 해야 할 질환으로 자궁외 임신과 난소종양이 꼬이는 경우들이 있다.

아랫배의 통증이나 출혈이 있기 전에 질을 통해 맑은 물이 흘러 내린다. 이것은 양막이 파열되어 양수가 흘러내리는 것이므로 임신부를 절대 안정시켜 48시간이 경과한 후 더 이상의 양수 유출이 없고, 출혈, 아랫배의 통증, 발열 등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허용된다. 그러나 위의 증상들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신산물인 배아나 태아와 태반을 제거하여야 한다.

불완전 유산은 배아나 태

특집 · 임신부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다

# 임신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예방 및 관리

◀16

김 수 평 ·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고혈압성 질환과 조기분만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 2. 임신초기의 유산

임신 초기에 전체 임신의 10~20%가 자연유산 될 수가 있는데, 종류로는 절박유산, 불가피한 유산, 불완전 유산, 계류유산이 있다.

절박유산은 초기 증상으로 출혈과 아랫배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출혈만 있거나 아랫배의 통증만 있을 수 있고, 또 두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도 임신 4주에서 6주 사이에 출혈이 일어날 수 있

요즈음에는 초음파 검사와 호르몬 검사로 이들 질환과 절박유산을 감별할 수 있다.

치료는 절대 안정과, 동통의 완화, 황체 호르몬제의 투여 등이 있으나 호르몬제의 투여효과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불가피한 유산은 임신초기에 자궁경관이 개대되며, 양막이 파열된 경우이다. 따라서, 대부분 자궁수축이 있어서 아랫배에 동통이 있고, 임신산물인 배아나 태아가 배출되기도 한다. 임신 초기에 양막이 파열되면 임신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염이 되기 쉽다.

아가 배출되고 태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궁안에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에는 출혈이 많아서 몸속의 혈액이 적어져 간혹 쇼크에 빠지기도 한다.

자궁경관이 열려 있고, 남아있는 태반의 일부나 전부가 자궁경관이나 자궁경관 밖에 걸쳐 있으면서 다량의 출혈이 있으므로, 즉시 겸자를 이용해 이를 제거하고, 소파하여 출혈을 멈출 수 있다. 열이 나는 경우에는 자궁내 감염을 의심하여 항생제를 투여한다.

계류유산은 자궁내에서 태아가 사망하여 잔류되어 있

는 경우를 말한다. 임신초기에는 정상임신의 증상과 증후가 나타나지만, 태아 사망 후 차차 입덧도 사라지는 등 임신 초기증상과 증후가 사라지면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 절박유산과 비슷하다.

초음파를 일정한 간격으로 해보면, 태아 심장박동이 없고, 태낭과 자궁도 더 커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태아 사망이 확인되면 즉시 소파수술을 하거나 자궁수축제의 투여로 사망한 태아와 태반을 배출시킨다.

간혹 사망한 태아가 자궁안에 오래 잔류하면 혈액응고 이상이 와서 코피가 나거나, 잇몸에서 출혈이 있거나 조그마한 상처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응고되지 않고 계속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찰과 치료가 필요하다.

흔히 3번 이상 반복되는 자연유산을 습관성 유산이라고 한다. 원인중 가장 많은 것이 염색체 이상이고, 면역학적 이상, 내분비학적 이상, 해부학적 이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3번 이상 자연유산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찰을 받고, 그 원인에 따른 치료 대책을 세워서 반복되는 유산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3. 전치태반

태반이 자궁경관의 안쪽 입구에 매우 가깝게 있거나, 그 입구를 덮고 있을 때 전치태반이라고 한다. 자궁경관

안쪽 입구에 완전히 덮혀있는 경우를 전 전치태반, 부분적으로 덮혀있는 경우는 부분 전치태반, 태반의 끝이 자궁경관 안쪽 입구의 가장자리에 있는 경우를 변연 전치태반이라고 하고, 자궁경부 근처 자궁의 아랫 부분에 있을 때를 하위 태반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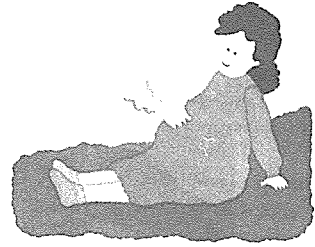
인공유산, 제왕절개를 받았던 임신부나 고령 임신부에서 전치 태반의 가능성이 높고, 자궁내막의 염증과 위축성 변화에 의해 임신성 자궁 내막의 혈관생성 결손으로 전치태반이 일어난다고 한다. 전치태반의 경우에는 분만 후 태반이 떨어지지 않는 유착태반이 잘 생긴다. 따라서 억지로 태반을 뜯어내면 태반의 일부가 자궁속에 남아 출혈이 일어나거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증상은 임신중에 통증없이 출혈이 일어나는 것이다. 임신부가 잠자다가 통증없는 출혈 때문에 놀라 잠에서 깨기도 한다.

자궁경관의 안쪽 입구가 개대되면 태반 부착부위가 찢어져 혈관이 파열되고 출혈이 일어나는데 자궁의 아랫부분은 수축이 안되고, 태반의 일부가 그러한 속에 파고 들어가 있어서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임신중에 통증이 없는 출혈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면 초음파 검사로 전치태반을 진단한다.

치료는 출혈량, 임신 주수에 따른 태아의 성장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임신주수가 적더라도 출혈이 과다하여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하면 즉시, 임신을 종결시키고, 출혈이 멈추고 임신을 지속시킬 수 있으면 절대안정을 취하면서 만기 임신까지 가도록 한다.

분만 방법은 제왕절개가 임신부와 태아를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태반 제거 후 지혈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궁을 떼어내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 4. 태반 조기 박리

태아가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붙어있는 자궁내벽에서 미리 분리되는 것을 태반 조기 박리라고 한다.

출혈은 양막과 자궁사이에 흘러들어 일부는 자궁경관을 통해 흘러나와 외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분리된 태반과 자궁 사이에 고여 있기도 하는데 이것을 은폐성 출혈이라고 한다. 태반이 전부 떨어지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원인은 모르지만 고령, 다산부에서 흔하고, 임신 중독증과 같은 임신성 고혈압성 질환에서

흔히 일어나기도 하고, 조기 양막 파열로 자궁내 용적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에도 발생한다. 임신부 복벽의 타박상, 흡연, 마약복용, 자궁근종이 있을 때에도 그 발생빈도가 높다고 한다.

계속되는 통증과 출혈, 출혈이 없더라도 커진 자궁의 어느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과 복벽이 단단해진 긴장감이 있고, 태동이 사라지면, 태반 조기 박리와 태아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

다량의 혈액이 자궁벽과 태반 사이에 형성되어 응고되고, 여기에서 유래된 트롬보플라스틴이 임신부의 혈관으로 들어가 혈관내 혈액응고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를 일으키면 지혈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속되는 통증과 출혈, 출혈이 없더라도 자궁과 복벽의 긴장감이 지속되면서 통증이 있으면 즉시 전문의사의 진찰을 받고, 초음파 검사, 태아 심박동 검사 등을 받고, 즉시 분만을 시도하거나 적절한 처치를 받아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 등을 예방하여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 5. 임신성 고혈압성 증후군

흔히 임신 중독증이라고 불려온 임신성 고혈압성 증후군은 전체 임신의 약 4~7%에서 발생한다. 흔히 출혈, 감염과 함께 모성사망의 3대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데, 미국에서도 전체모성 사

망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임신 중반기 이후에 손, 발, 얼굴이 붓고, 소변에 단백이 나오고, 혈압이 오르는 전자간증과 여기에, 경련성 발작이 일어나는 자간증이 있다. 전자간증은 첫 임신 중에 흔히 나타난다.

혈압은 6시간 이상 간격으로 두 번 검사할 때 수축기와 확장기 혈압이 각각 140/90 mmHg 이상 될 때를 말한다. 단백뇨는 24시간 요단백이 300mg 이상일 때를 말하고, 부종은 전자간증의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 발, 눈꺼풀이 퉁퉁 부어 오른다. 아직도 임신중 이 질환의 발생기전은 뚜렷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임신성 고혈압성 질환으로 자궁-태반 혈류의 감소와 태반기능 장애로 태아 성장 제한이 와서 태아 체중이 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태아 사망에 이른다.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혈액응고계, 간, 신장, 뇌와 눈에 발생한다. 혼수상태에 빠지는 일은 드물지만 심한 급성 골혈압으로 대뇌혈류의 자동조절이 실패한 경우에는 올 수도 있다.

흔히 전자간증 경과 중에 상복부에 통증, 두통과 시력 장애가 있으면 경련이 뒤따라 나타나 자간증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산전 정기진찰 중 모든 임신부는 혈압, 소변 검사와 여러 가지 혈액검사를 철저히 받아야 된다. 임신 중 과로와 영양분 섭취의 부

족 등이 임신성 고혈압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른 영양분이 섭취되도록 노력하고, 과로를 피하고, 철저한 산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 6. 조기분만

조기분만의 정의는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되는 경우로 하고 있다.

조기 진통이 와서 조기 분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출생아의 생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조기분만이 일어나면, 이를 막기 위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요즘에는 조기 진통이 일어나 조기분만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임신부를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장비와 신생아 전문의사가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임신 20주 이후 37주 이전에 5분에서 8분 이내의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자궁경관이 변화하여, 2.0cm 이상 개대되고, 자궁경부가 짧아지면 조기 진통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예측 지표와 검사법이 있으나 아직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조기 진통이 올 것을 예측할 뿐이므로 산전 정기 진찰을 철저히 받아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운다.

흡연, 음주, 약물복용을 하는 임신부와 영양섭취가 부족한 임신부, 그리고 연령이 어린 임신부 등에서 조기

분만이 일어날 수 있다.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양막파열, 자궁경관 무력증, 자궁기형, 양수과다, 자궁근종, 전자간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분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7. 결론

임신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수없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란 극히 힘들며 어디까지나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철저히 받고, 전문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를 하

는 것만이 이들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

또 이번 임신으로 태아를 잃더라도 다음 임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72

### 건강을 위한 생활속의 한방지혜

## 손쉽게 만드는 민간 생약

### 감 기

자 료 · 법인단체 의료보험조합

#### 1. 감기 초기에는 마늘구이를

껍질 벗긴 마늘을 한두쪽 알루미 냄박지에 싸서 약한 불에 오래 굽는다. 그런 다음 뜨거운 것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다.

몸이 따뜻해지고 피곤도 사라지며 의외로 맛도 괜찮다. 바쁠 때는 그냥 프라이팬에서 구워도 된다.

#### 2. 목이 따끔거릴 때는 파 찜질

첫째 방법은 날파를 가늘게 썰어서 가제에 싼 다음 그것을 목에 감는 방법이다. 날파의 냄새가 코를 자극하여 코막힌 데도 효과가 있다.

이때 소금물을 조금 진하게 타서 목을 행궤낸 다음 시도하면 더욱 좋다.

또 한가지 방법은, 날파를 크게 썰어 구운 다음 가제로 싸서 그것을 목에 감는 것이다. 목을 따뜻하게 해주므로 그만큼 효과적이다. 아이들 감기에 한번 써 보는 게 어떨는지.

#### 3. 무악 꿀 시럽은 기침에 좋다

무를 잘 씻어 껍질째 깍둑썰기를 한다. 그 다음, 무를 덮을 정도로 꿀을 부어 하룻밤 재워두면 된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큰 숟가락으로 하나씩 먹는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 정도는 보존이 가능하다. 또 무 대신 레디쉬를 써도 된다. 달콤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다.

#### 4. 파 · 마늘을 넣은 된장국도 효과적이다

감기 초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폭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계란 술이 좋다고 하는 것도 그 때 문인데, 비릿한 냄새가 싫으면 레몬이나 잘게 썬 파를 넣어 먹으면 먹기 쉽다.

또 날파를 썰어 넣어 만든 된장국도 효과적이다. 마늘을 갈아 넣어 만든 된장국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나타낸다.

이것들은 모두 뜨거운 때 후후 불어가며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몸 전체가 따뜻해질 것이다. 취침 전에

마시면 더욱 좋다.

#### 5. 목이 따끔거릴 때는 마늘로 행궤다

침을 삼키면 목이 따끔거린다. 이럴 때는 역시 목을 행궤내야 한다. 얇게 껍질을 벗겨 낸 마늘을 갈아서 가제에 받쳐 즙을 짠 다음 미지근한 물로 열배 희석해서 목을 행궤다.

#### \* 마늘

알려진 바와 같이 오랫동안 한방 약으로서 사용되어 온 백합과 다년 초이다.

- 효 용 : 주된 성분은 알리신과 스코르신. 알리신은 강한 항(抗) 박테리아 작용이 있어서 티푸스균, 콜레라균을 비롯하여 연쇄 포도구균(감기·편도선염·기관지염의 원인인 됨)에도 항균력이 있다.

스코르신에는 피로회복 및 신진 대사 촉진 작용이 있다. 또 호르몬계통을 자극하기 때문에 강정 효과도 지닌다.

- 이용방법 : 보통에는 마늘에 흑설탕과 물을 넣어 약한 불에서 끈적끈적하게 만든 다음 하루 3회 식후에 먹는다.

기관지염일 때는 마늘을 오븐레트에 싸서 복용한다.

- 주 의 : 항 박테리아 작용이 있는 알리신은 공기에 접촉하면 약해지므로 잘게 다지거나 즙을 냈을 경우에는 곧 먹도록 한다. 72